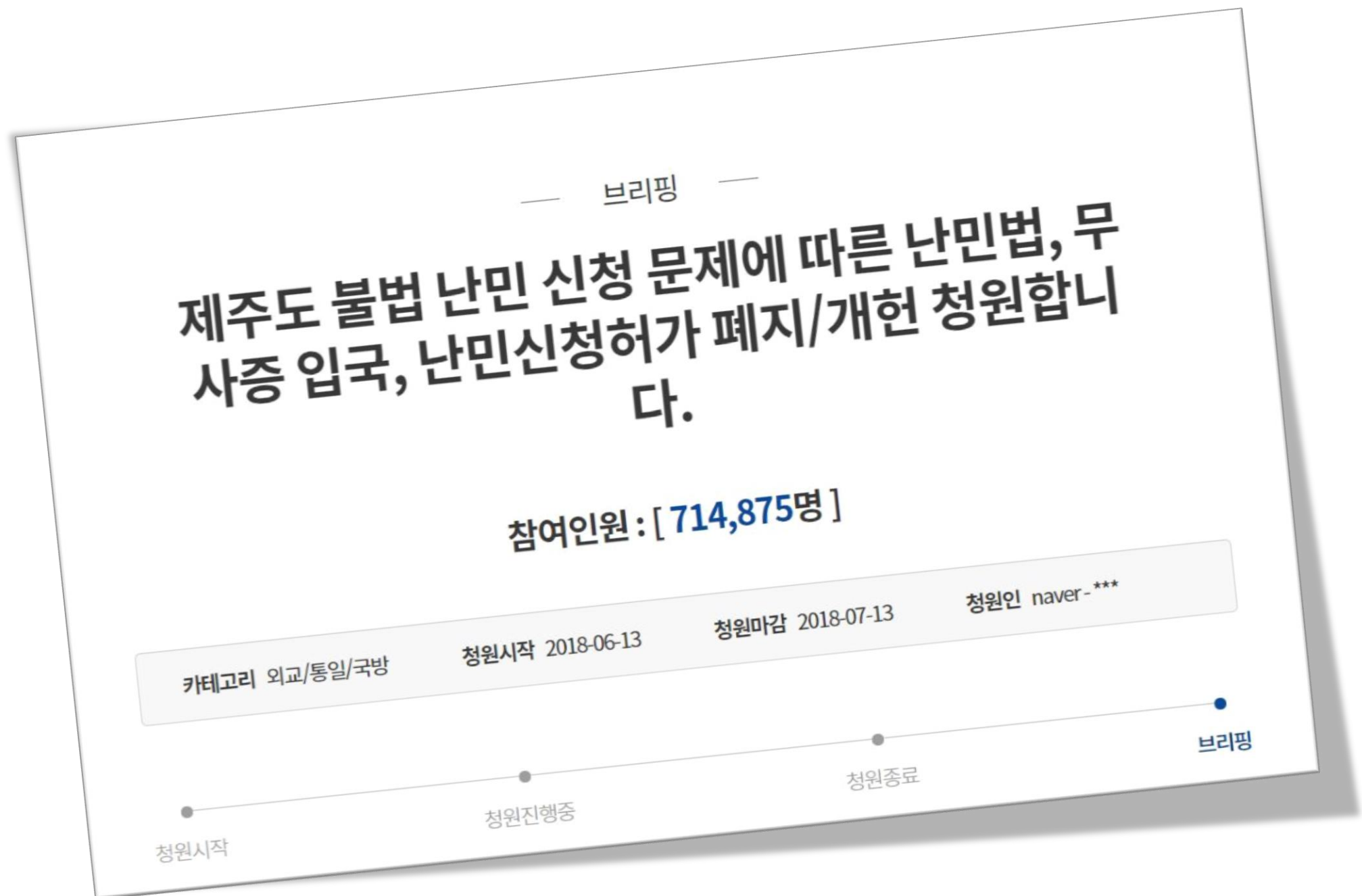


난민 혐오 반대 카드뉴스 ①

**난민에게 전혀
'인도적' 이지 않은 한국 정부**

최근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난민 혐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익들은 무슬림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5차례 집회도
열었죠.

“테러 위협이 커진다”

“범죄와 성폭력이 늘어날 것”

“일 자리를 뺏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을 개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29일, 8월 1일 법무부)



그 결과

예멘 난민에 대한

1, 2차 심사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신청자는

0명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만,
34명은 아예 '난민 불인정' 결정...

**‘인도적 체류 허가’ 는 불안정한 체류
말고는 보장하는 게 없고, 이마저
수개월마다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숨만 쉴 수 있게 허가해주는 것”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



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http://stu.workerssolidarity.org>



우익들은 이마저도 ‘지나치게 관대하다’ 며 “강제송환” 하라고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그런데 과연 한국이
‘난민에게 관대한 나라’ 일까요?

전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 자국을 떠난
난민은(2017년 기준) **2천 540만 명**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



그 중에서 단 0.17%만이
한국에 왔을 뿐인데도...

(1994년부터 '누적해서' 4만 명)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고작

4.1%

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난민 인정률 37% -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를 신청해도

- ✓ 부정확한 통역, '가짜' 난민 속아내기식 불공정한 심사, 박해의 입증책임 전가
- ✓ 6개월간 취업금지, 쥐꼬리만한 생계비마저 지급대상자의 3.2%만 수령(2017년 기준)
- ✓ 의료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복지도 없음
- ✓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난민 심사

⋮

난민들이 겪는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과 가난,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을 한국 정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난민 혐오 반대 카드뉴스 ②는
'무슬림은 테러와 범죄를 일으킨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